

壬辰倭亂時의 嶺左義兵活動一斑 ——蔚山地方 義兵의 例——

李 謙 周
史 學 科
1984. 4. 30 접수)

〈要 約〉

壬辰倭亂(1592~1598)에 관한 認識이 새로워짐과 아울러 그 당시에 있어서의 義兵活動은 倭軍의 擊退, 國土의 守護에 보다 중요한 役割을 한 것으로 評價된다. 또한 朝鮮社會의 모순이 나타난 當時의 狀況에서 全國的으로 義兵이 蜂起할 수 있었던 基底에는 儒生 내지 士林層의 主導와 一般百姓의 呼應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하간 이 義兵에 대하여는 많은 論究가 있지만, 嶺左慶尚道東部地域에서의 活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극히 制限된 資料이나마 近來에 入收된 義兵關係記錄을 檢討하여 이 地方의 義兵活動을 考究코저 하였다. 그리하여 蔚山地方의 義兵은 全國的인 義兵의 性格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 Study on the Role of Korean Militia around Ul-san Are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1592—1598)——

Lee, Kyum Joo
Dept. of History
(Received April 30, 1984)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on the role of Korean militia in fighting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years between 1592 and 1598.

It is estimated that the Korean militia played an important part in driving the enemy forces out of the Korean peninsula. Though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concerning this militia, little is known about their movements around the eastern part of Kyung-sang Do Province. Examining the records recently discovered, it is concluded that the militia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protection of Ulsan area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I. 壬亂의 概況과 義兵의 役割

近來 壬辰倭亂에 관하여 새로운 認識을 強調하는

論究가 행해지고 있다.⁽¹⁾

실상 이 戰爭에 대한 從來의 認識은 朝鮮의 一方의 敗退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倭軍의 釜山侵攻以來 朝鮮軍은 “望風大潰” “土崩瓦解”되고 倭軍은 “乘

(1) 許善道: 壬辰倭亂論. 考試研究, 1978, 10.

李泰鎮: 壬辰倭亂. 극복의 社會的 動力——士林의 義兵活動의 基底를 중심으로—— 韓國史學 5, pp.45~7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陸士嶺國軍事研究室編: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許善道 壬辰倭亂論은 一般人的 理解를 獨도록까지 상세히 論述되고 있다. 本稿 또한 이에 저

勝長壽"하여 1個月未滿에 이미 漢城을 빼앗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平壤以北으로까지 밀렸던 朝鮮이 丁酉上命脈을 維持하고 漢土를 回復할 수 있었던 것은 明軍의 出兵과 李舜臣艦隊의 孤軍한 奮鬪 및 義兵勇將의 죽음이 따라 不可避한 倭軍의 撤退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는 朝鮮支配層의 黨爭과 그에 따른 內政·武備不設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認識: 淵源은 確實한 것도 없이 日帝時代에 植民政策의 批判에서 日人 官學者들이 意圖的으로 朝鮮에 不利한 結論을 導出한 데에 있는 것이다. 例컨대 池內宏의 「文祿慶長の役」같은 著述은 이른바 南滿州鐵道會社 調査部 歴史調査室에서 펴낸 책으로서, 주로 亂前情勢의 誇張과 初戰에 朝鮮側이 不利하였던 戰勢, 翌年 2月の 碧蹄館戰鬪 및 6月の 이듬해 第2次 晋州城戰鬪 등, 그들이 一時的으로 勝利를 부분달을 크게 叙述하였던 것이다. 또한 西厓柳成龍의 懲愆錄같은 自己反省의 立場에서 쓴 記錄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더욱이 단단한 自己文化基盤에 대한 自信感위에서 가능한 赤裸裸한 自己反省의 經驗을 갖지 못한 日本側으로서의 懲愆錄의 記事가 다치 敗北를 自認하는 것일처럼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近來 壬辰倭亂에 대한 再檢討 結果, 壬辰倭亂의 總決算은 결코 朝鮮側의 敗北가 아니라 倭가 當道の 侵略目的을 조금도 달성하지 못한, 그들의 全面的 索取欲이 좌절되고 있다.

戰爭의 經過樣相과 보더라도, (2) 1592年 6月 中旬에 平壤이 함락된 때까지의 初期 2個月餘는 倭가 攻竹之勢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沮止되어 더 前進할 수가 없었다. 이어 半年間의 膠着狀態뒤 1593年 1月初에 朝·明聯合軍이 平壤을 奪還하고 이어 약 20日만에 碧蹄館까지 敵을 쫓았으며 同年 4月下旬에는 首都 漢城을 收復하고 倭는 東南海岸에서 固陣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부터 4年間에 걸쳐 休戰 내지 講和交渉이 계속되었고, 이것이 決裂되어 1597-丁酉年에 倭가 다시 侵襲한 이른바 丁酉再亂이 1年餘동안 계속되었으나

倭는 丁酉年 7月에서부터 약 2個月정도 攻勢를 취하였을 뿐, 결국은 休戰이나 講和의 提案조차 하지 못하고 朝鮮沿岸에서 逃亡치 빠져나가는 데도 萬難을 겪는 가운데 戰爭은 1598年 11月 19日 李舜臣將軍의 戰死로 말미암아 倭軍에 대한 封鎖 내지 追擊作戰이 멈추어짐으로써 끝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戰爭初期에 倭軍의 銳鋒을 꺾고 北上을 沮止할 수 있었던 것은 壬辰 4月下旬 이후 南海上에서의 李舜臣將軍의 功業과 三南 各地에서 蜂起한 義兵들의 活躍에서 말미암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海上에서 李舜臣艦隊에 倭水軍이 連敗함으로써 西海를 통한 海上補給이 不可能하게 되고 穀倉인 湖南地方으로의 侵襲이 困難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陸地에서는 義兵들에 의해 後方을 攪亂당하고 延長된 兵站線이 遮斷당한 反面, 朝鮮은 湖南地方을 國家恢復의 根基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平壤奪還 이후 戰局을 결정적으로 逆轉시키는 데는 明軍의 來援이라는 朝鮮의 外交上 努力이 奏効한 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義兵의 경우, 民間次元에서 시작되었다는 點으로 他二者와는 다른 側面에서 注目하게 되는 바, 그만큼 義兵의 活躍에 대한 論究가 계속되어 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現在까지의 壬辰亂에 있어서의 義兵活動에 대한 研究는 대체로 2가지로 그 性格이 結論지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첫째, 義兵의 蜂起는 各地的 儒生, 또는 政治的 勢力으로 볼 때 士林의 主導로 이루어졌다는 面이고, (4) 두째 이를 義兵은 國家의 守護를 부르짖고 나섰지만 실지의 活動에 있어서는 우선 各己의 鄉里, 즉 鄉土守護부터를 目的하였다는 것이다. (5)

그런데 義兵活動의 範圍를 地域의으로 살펴보면 三南, 또는 下三道라고 表見되나 既往의 論究에서는 湖南·湖西와 嶺右一處尙右道와 局限하여 言及되는 듯, 慶尙左道一쪽 東部地域에 있어서의 活躍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筆者는 平素에 이 點에 대하여 疑問을 갖고 있던 중, 近來 蔚山地方 舊家에 이 지방 義兵活動에 관한 記錄이 保存되어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고

큰 바 많음을 밝혀 둔다.

(2) 이 戰爭과 관련한 朝鮮內部的 全般的 情勢라던가 防禦體制, 또는 武備 등에 관하여서도 前記 論究에서 言及되는 外에 特히 火藥武器의 問題 등이 다루어져 있으나 本論에서는 擧論치 않기로 한다.

(3) 壬辰亂時의 義兵에 대하여는 崔永禧에 의한 일련의 研究가 있다.

壬辰義兵의 性格, 史學研究 8, pp. 1~35, 韓國史學會, 1960.

(4) 이 點은 註(1) 李泰鎮의 論文과 韓國軍制史 朝鮮後期篇에서 鮮明하게 論述되고 있다.

(5) 崔永禧: 前揭論文.

部는 斷片的이나 그 內容을 알 수도 있었으며, 舊家 가운데 淸安李氏家를 探訪한 기록에 忠義錄이라는 該家門을 中心으로 한 義兵活動 全貌의 記錄을 閱覽할 수 있었다. 淸安李氏忠義錄을 일단 檢討한 결과, 部分的이고 間接적으로 接하였다고 여겨지는 이 地方의 다른 義兵의 경우와 時期, 活動領域, 主導者의 身分·活動方法 등 여러 면이 대체로 같은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資料蒐集이 不充分함을 무릅쓰고 嶺左義兵의 片貌라도 밝혀 보자는 蠻勇을 부리게 되었다. 이 점, 하나의 試圖로 여겨 惠諒과 아울러 毗正 있으시길 감히 바라마지 않는다.

II. 蔚山義兵의 活動大要

蔚山地方은 慶尙左兵營이 設置되어 있었으나 壬亂初에 釜山에 侵攻한 倭軍이 漢城으로 直衝하는 線에서는 벗어난 位置에서 倭軍의 主力이 아닌 部隊의 侵襲을 받았다. 그러나 左兵使 李珪의 棄城逃走로 큰 接戰없이 陷落되었고 이 무렵에 이미 蜂起한 蔚山일대의 義兵들은 4年間的 이른바 對陣期間中 西生浦를 中心으로 布陣한 加藤清正 등의 倭軍部隊와 激戰을 거듭하면서 郷土守護에 盡力하였다. 또한 丁酉再亂時의 이른바 第1次 蔚山城 戰鬪(1597. 12. 12~1598. 1. 4) 및 第2次 蔚山城 戰鬪(1598. 9. 22~9. 25)에서도 慶尙左兵使 權應銖, 蔚山郡守 金太虛, 또는 別將 金應瑞 등의 지휘 내지 協力下에 끝까지 奮鬪하였다.⁽⁶⁾

左兵使의 棄城逃走나 1, 2次 蔚山城 戰鬪에 대하여는 그 顛末을 상세히 밝힌 論著가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이를 省略하고 義兵活動의 大要만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우선 主要 義兵將 내지 擧名되는 活躍者로 徐仁忠, 朴震男, 朴麟福, 柳汀, 尹弘鳴, 李應春 등⁽⁷⁾과 李鳳壽·李萬壽 형제, 金潤龍, 朴應春·朴榮祿 재종형제, 田永芳, 李翰南, 朴孫·文 부자, 金應亮·麗度 부자, 金士俊·金應澤(應亮의 兄) 종형제, 沈

渙, 朴應禎, 朴繼叙 등을 들 수 있다.

徐仁忠은 壬辰年 5月 10일에 이미 擧兵하여 徐蒙虎, 余慶元, 朴鳳壽, 朴慶說, 成大明, 許嗣男, 金戒男과 上記한 戶長 朴麟福 및 朴輝, 朴呂潭 등과 함께 翌年 11月까지 慶州·蔚山일대에서 수많은 戰鬪를 통하여 倭賊의 목을 낸 것만도 數百及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壬亂前에 이미 武科에 及第한 그는 義兵活動의 功으로 亂初부터 官職을 제수받기 시작하여 1593年 6月에는 多大浦僉使, 그 翌年 10月에는 釜山僉使가 되었으나 1593年末 以後는 水軍節度使 揮下에서 各地 戰鬪에 參加한 것으로 보인다.

朴震男 역시 兩班身分으로 星州에서 戰死하였다.

柳汀은 子 榮春, 孫 泰英, 從子 伯春·得春을 거느리고 蔚山 太和江일대에서 大邱 八公山에 이르기까지 各處에서 奮鬪하다가 戰死하였다.

尹弘鳴도 班家 後孫으로 癸巳年(1593)에 諸義將과 더불어 鷗江에서 會盟하고 蔚山을 비롯한 各處에서 活躍하였으며 丁酉再亂에는 火旺山城으로 가 郭再祐와 함께 지켜 싸우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全貌를 살핀 것이 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兩班階層의 主導下에 그 一家와 郷吏 및 一般百姓들이 相互 連結하면서 蔚山으로부터 멀리는 大邱 및 東南海岸 일대에서 義兵活動이 展開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III. 淸安李氏 忠義錄을 中心으로 한 義兵의 活躍相

淸安李氏의 世系를 보면, 그 始祖는 麗末의 淸安君 李陽吉로서 그 아들 從周가 朝鮮 定宗時 知蔚州事를 지낸 바 있으며, 그 子孫도 계속 官路에 나갔는데, 5世에 와서 龍川府使를 지낸 裕美가 延日로, 金城郡守였던 地는 慶州로 南落하는 등 嶺南東部地方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듯하다. 그 이후에는 本格的으로 官路에 나가지는 않은 듯하나, 地方의 兩班으로서 處身하고 科擧에 合格한 경우는 많

(6) 壬亂 全般의 狀況 및 初期戰鬪, 2次에 걸친 蔚山城戰鬪에 대하여는 已往에 刊行된 下記書를 參照.

李炳錫: 壬辰戰亂史 3冊, 新硯實社, 1974.

(7) 이들의 活躍에 대하여는 各己의 記錄이 傳해지고 있다.

徐仁忠: 望湖堂實記

朴震男: 梅巖實記

尹弘鳴: 花巖實記

柳汀: 松濤遺誌

李應春: 忠義錄

그리고 蔚山義兵 全般의 戰鬪實記로서 鶴城衿神錄.

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壬辰倭亂時에 義兵의 主導하고 參與한 人物은 이 一家門의 父子·叔姪·兄弟間의 13人이나 되고 金應河 등 女胥와 二子弟까지 합하면 20餘人에 이르러 같은 地方에서 一家門의 義兵은 많지 않은 예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一門內에서의 義兵이 하나의 義兵部隊로 統合되었던 것은 아니고, 3個部隊 以上으로 各己의 單位로서 活動하면서 必要에 따라 連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義兵將의 呼稱만도 天使將 李訥과 奮勇將 金應河가 있고, 退思齋 李應春은 凌海將이라 號하고 弟 遇春·逢春과 子 承金 등과 더불어 太和江沿邊을 中心으로 活躍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各 義兵將의 活動을 體系的으로 把握하기는 困難하므로, 尙年 年月日順으로 整理記錄된 樂義齋 李訥(李應春의 再從姪)의 亂中日記를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 그 原文을 轉載하면서 그 날짜마다 他 義將의 記錄中 重要事項의 要旨를 筆者 나름대로 說明하려 한다.

樂義齋公逸稿 亂中日記

壬辰正月初一日元朝 天陰風起 以年(缺)卦 觀其易爻則全體興師動衆之理 掩卷束之架上 自此以後不事(缺)射工

三月十三日 習射于黃龍岸 時金應河來訪射亭 與吳益善 欣然把袖曰 今日所爲乃 陶侃運甕之事 仍爲習射

四月初二日 謁堂叔父子退思齋 叔父曰 近來人心 洶洶無故思亂世變可知 爲我畫計 余袖出陰符一篇 對曰 小子近日之工都在此篇 願叔父急爲聚粟造器械爲陰雨之備

十四日 聞東萊釜山陷沒而府使宋象賢食使鄭撥死之 衆皆大懼欲爲解散 遂拔劍擊地曰 君等若不從吾令者命在此劍 因擲一大石投地沒入地中 願從者四十九人

十五日 聞兵使李珪棄城遁去

十六日 使奴尚大刷馬則其中有紫騮一疋 鄭吳視所養馬 乃據鞍加鞭馬亦調習

十八日 裂紙爲大旗五十竿 書之曰天使將李訥 結陣于楸洞 普濟生靈奔竄諸人 一一來于結陣處 若違吾令擧兵先討寫畢建置嶺上

이 때 退思齋 李應春도 倡儀聚兵을 시작하였다.

十九日至二十二日 入室遠願山佛國山留聚人及金得福率衆來附

二十三日 裂紬數十尺爲旗 大書天使將李訥五字

二十八日 往來之倭突入開谷村放火取糧 中夜率精兵七十人擧火馳入 賊兵四十餘亦一時突出 使強弩射殺十六人奪其銃筒二十柄

五月二十六日 聞賊船停泊水營浦往來山谷虜掠村

間 下令軍中曰 東海一隅山川險塞可以用兵 願諸軍 効死進前

二十七日 歸省于寓所 母氏責之曰 昨日入寇之賊 何不盡數追殺而來乎 汝兄二人在此孝婦亦在傍 勿以我爲憂急往討之 乃拜辭

二十八日 率衆除東嶺結陣孝嶺 凄然口吟曰 山名 孝嶺人違孝對此慈嚴愧不孝

이날 李芳麟은 判官 朴毅長과 더불어 栢栗山에서 賊을 막았다.

다음날인 29일에 李應春은 兩弟 및 子 承金과 더불어 300餘衆을 이끌고 孔巖에서 討賊하였다.

六月初三日 上書從兄曰 戰陣無勇非孝也 願兄勉之 哉勉之哉

初九日 進軍石邑 黃希安曰 久聞元帥之名 今見 威儀 東海一方其蘇矣 願同心討賊云

6月 5일에 李應春·遇春·逢春 三兄弟와 應春의 子 承金, 李景淵, 尹弘鳴, 金應忠, 蔣希春, 朴孫, 全珩 등 諸 義將이 蔚山으로부터 汶川으로 가 모였다.

十三日 還軍于中山山上 翌日 使諸軍拾聚石礫百餘堆 暗積芽田中 擇精兵七十人 伏置松蔽下 又製紙爲旗三百 建于嶺上以爲疑兵 又明日夜半 賊兵突入石邑洞口 使諸將擧烽火 賊見火 馳入漸逼山下 使精兵八十餘人 列立山上 四投石礫石下如雹電 賊兵中傷不可勝數 投死者百十六人 射殺者四十三人 餘黨皆遁逃

十七日 還軍芽田山下 宣言軍中曰 權士言 李宜潛 博學多聞 氣質剛毅 奪憤倡義 大率軍兵 與徐思迪 勤賊兄江之賊云 兄江之北 月城之東 不足憂也

八月初七日 聞賊兵數百 留屯利見臺下 疾馳至斗山下 賊兵望見本陳 軍容不敢戰 中夜遁去

8月 21日 이 무렵 慶州奪還作戰이 飛擊震天雷를 이용하여 成功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李芳麟이 參加하였다.

九月十六日 移陳羅兒嶺上 連日習陳 二十八日 賊兵三百餘人 潛入孔巖 使諸軍 登山上 拾聚柴木三百餘駄及石礫二百餘堆

十月初六日 黃昏 賊黨 突入羅兒谷 使諸軍 運來柴木 暗填谷左 又使弩于六十餘人 升樹覘勢 又使餘兵 登山鼓譟 使精兵伏于谷右 伏兵應聲放火 樹上強弩一時俱發 山上鼓譟之兵 亦亂投石礫 時東南急 火烈風猛 賊兵呼吸不通 自投火死者相枕 而腥臭聞十里 矢石傷死者 亦五十餘人

初七日 平明 點閱軍丁 黃希安曰 昨日所獲首級 宜獻行朝云 余正邑責之曰 賊兵跳梁 京城陷沒 大駕播遷 僅破一隅之賊 何勝捷而報聞乎 以汝名書之 報捷 諸軍皆曰不可 因拔劍指 書示曰 爲國討賊

人臣常職 莫違吾意 諸軍不敢復言

11月 6日에 李應春은 流矢에 負傷당하여 石邑村에서 치료하게 되었다.

이 무렵인 11月 23日 朴毅長과 權應鈇, 李芳隣 등은 李應春에게 書信을 보내 相助할 것을 말하다.

十二月十六日 聞賊船 泊孔巖 移陳于下西浦 日習水戰

癸巳 2月 6日에 李應春部隊는 太和江에서 水戰에 賊을 破하였다.

癸巳 四月十一日 進軍利見臺下
二十七日 以太宰 祭海神
十月二十九日 與諸義將 會鷗江 有同苦錄

이때에 蔚山일대의 義兵將이 모두 太和江 鷗江에서 會盟하였다.

甲午 三月二一四日 率兵 赴白蓮巖
二十六日 進軍鷗亭 賊船蔽江而來 即乏諸軍 捲取蒼草 積于江渚 束葉作偶人五十餘 立于平沙上 各持長竿一兩 乘黃昏曳柴偽遁 賊兵望見持竿而立 大疑 如有退去之意 我軍乘勝長驅 一時衝火 積葉烟烙 蔽江賊兵 燒船自退

四月十九日 進軍達峴
五月初一日 還開谷 奮勇將金應河來言曰 太和一口 潛賊之要路 不可暫時空陳 宜遣應壁 繼秀及弘燾 三義將云 即日治送

九月十八日 聞賊船無數來泊于下西浦 大率軍兵 即日踰嶺

十九日 進兵石邑山上 逼賊兵之要路
十月初三日 賊兵數千餘 漸逼羅兒谷口 使諸軍運來所儲柴木 暗漬谷左 夜入松田 伏五百餘株 而殺作文餘立之 刮其皮 煤黑其頭 悅若偶人形 使步兵各持二炬 伏於其傍 賊果夜至谷口 使強弩橫踰小嶺 偶人傍伏兵 一時舉火 火光如晝 人影遍山 賊望見大懼 遁逃之際 橫踰之強弩 俱發 相踐而死者五十餘人 射殺者七十餘人

初九日 還軍牛山下 聞堂叔父 力戰開雲浦 偶中賊丸 仍卒于陳中 不忍憤慟 即日踰嶺

이날 李應春은 開雲浦에서 水路로 侵襲하는 賊船을 막다가 孤立된 가운데 奮銳끝에 戰死하였다.

乙未 正月二十日 還軍 留陳佛國山下
二月二十八日 聞賊兵屯聚影池下 遣黃希安 往覘賊情 則似有怠慢之意 即令諸軍 乘夜潛入松田 分爲三隊 使黃希安 率善射者六十二人 伏于楓蔽中 使金得福 率勇健者四十餘人 各持板鉀 伏於堤內 親率餘兵百餘人 徇于賊陳之外 賊魯我軍孤弱 無交鋒之志 守堤之兵 一時鑿堰決水 灌賊陳 時夜五更 潭水死者 不知幾許 而射殺者三十餘人

丙申 二月初八日 母氏偶患時疾 罷陳而歸 日夜焦達侍湯 七月 親族復常
九月初五日 聞權應鈇 率七百餘人 入昌寧 即日鍊卒五百餘人 向大丘

이때 奮勇將 金應河도 大邱로 向하였고 李遇春도 30餘人을 이끌고 뒤따라 갔다.

李承金 역시 뒤따라 水川에서 合流하였다. 그 밤에도 많은 義兵將들이 뒤이어 大邱로 向하였다.

二十八日 入八公山 與諸將 有會盟錄
十月十九日 聞母氏患候 率衆還家
十二月初九日 移陳達峴 與諸將 有復誓雪恥之試
二十六日 移陳仲鷗亭 時賊兵敗遁 諸將閱歲驅馳之餘 頗有懈惰之志 貽書試之

丁酉 二月二十七日 與再從兄三韓 會于白蓮巖
七月十一日 赴火旺山城 有同苦錄
八月二十二日 聞統制使元均敗死 賊兵乘勝長驅 各處義將戰慄 而判邑·守宰·望風奔竄 即日移陳月城 與諸將禦賊 宣言陳中 有守城之試

九月初二日 聞觀察使李用淳 兵使金應瑞 權應鈇 討賊干達城 即選精兵五百餘人 向大丘

初六日 行至永川 聞防禦使郭再祐丁母許氏憂 與諸將雪涕曰 我國不幸 何至於此也 招諭使金誠一 已卒于晉陽 吾宗兄彭壽 已死于西生浦 與誰謀討乎 諸將有恐懼之志 乃善諭曰 義兵將權應鈇 權應心 猶存乎 百戰之場 盡是我邦之干城 何難乎 討賊也 諸將勿懼馬

二十二日 進兵八公山 中夜賊兵驅馳左右 乃上馬力戰 賊魯鎗法甚精 於是奮身向炮 曲身避丸 如是著十餘 賊佯敗以走 復爲彎弓追之 賊兵大散 乃還本陳 血流懷內 以手按之 丸中左臂外部

十月十七日 還家 日事服藥
十二月初十日 聞防禦使權應鈇 率鏡鏡 江原兩道兵 及天朝將副摠兵解生 經理楊錫 會于月城 急聚軍糧兵器

二十一日 逆戰島山 權應心·金應澤爲賊丸所中 故不忍憤慨 乃上馬追射 至鷗亭下 堂叔父 亦馳突左右 賊兵復死者 二十餘人 防禦使·副摠兵 大加驚歎曰 漢壇空設 周車未載 醜首千級 功讓諸軍如此 神義之帥 古未見之(缺) 有是叔 有是侄(缺)

이때가 바로 第1次 蔚山城戰鬪로부터 第2次 蔚山城戰鬪의 期間이었다.

戊戌 正月十八日 休軍白蓮巖
十一月十六日 倭魯秀吉死 賊衆白此有解散之心
十七日 麻提督責 請會諸將于慶蔚之境
十二月初三日 董一元 破賊于泗川 自是倭寇撥歸 湖嶺兩南悉平

己亥 二月十八日 重修樂義齋 搜取書冊 會一二文人 講習詩禮 因書格言于扁楹之左右 以自戒焉

Ⅶ. 蔚山義兵의 性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壬辰倭亂時 蔚山地方에서의 義兵의 活躍은 그 兵力에 있어서나 內容에 있어서나 記錄의 正確性 問題를 勘案하더라도 활발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地域的으로 蔚山—慶州—大邱일대를 移動하면서 他地의 義兵 에게는 官軍과의 連繫까지 할 수 있었던 점은 蔚山과 局限된 것이 아니라 嶺右義兵의 活躍이 밝혀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가졌던 疑問을 充分히 解消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勿論 이 地方이 前述한 바 있듯이 당초에 倭軍의 主進攻線上이 아니었기 때문에 嶺右義兵이나 湖南義兵이 湖南地方에 대한 倭軍의 侵襲을 沮止하고 敵의 後方 내지 兵站線을 攪亂한 역할로 미루어 볼

때는 比重이 떨어질지 모르나 地域的 差異를 그대로 直結할 수 만은 없을 듯하며, 또 적극적으로 嶺右義兵과도 協力한 事實에서도 반드시 比重을 따질 問題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性格에 있어서도, 그 主導層이 대개 官路에 나가고 있지 않은 이 地方의 兩班, 다시 말해서 儒生이라던가 혹은 士林에 屬하는 階層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全國的인 義兵蜂起의 性向과 同一한 現象이라 할 것이다. 또 義兵의 活動範圍에 있어서도 그들의 鄉里를 中心으로 한 國土守護라는 全般的 性向과 마찬가지로 領域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동안 不明確하였던 慶尙左道에 있어서의 義兵活動도 立地的 差異가 있는대로 三南義兵 全般的 모습과 同一한 것이었음이 分明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좋을 듯하다.